

육아시설 청소년의 성가치관

- 자아정체감과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

이영미(천안대학교 교수) · 김경화(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민하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청소년 성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행동이나 성문제가 성지식의 부족보다는 성가치관의 혼란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가치관의 형성을 위해 가정 및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취약한 제반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육아시설 청소년의 경우, 일반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성가치관의 형성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중학교 2, 3학년 육아시설 청소년(남학생 42명(41.2%), 여학생 60명(58.8%))을 대상으로 육아시설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미치는 자아정체감과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육아시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육아시설 청소년의 성가치관은 보육사의 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 육아시설 청소년의 성가치관은 육아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3) 육아시설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대한 육아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보육사의 지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육아시설 28곳을 방문하여, 102명의 육아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는 성긍정성과 성평등성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9문항의 성가치관 척도(5점 리커트 척도)와 자아목표감, 자아미래감, 자아수용감, 자아주장감, 대인친밀감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25문항의 자아정체감 척도(5점 리커트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된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 척도(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단순 및 종회귀분석을 이용해 유의 수준 $\alpha < .05$ 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보육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에 비해 보다 더 건강한 성가치관을 나타났다 ($R^2 = .04$, $p < .05$). 둘째,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보이는 육아시설 청소년일수록 건강한 성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7$, $p < .01$). 셋째, 육아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보육사의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09$, $p < .01$). 즉 보육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육아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육아시설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미치는 보육사의 지지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나, 자아정체감 통제 시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시설 청소년의 성가치관에 미치는 보육사의 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육아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육아시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